

23 칠층산

토머스 머튼

[칠층산]의 하이라이트

- 난생처음으로 진심어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내 입술, 지성, 상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내 생명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기도였다.
- 그리스도 안에 숨은 그들은 하느님의 가난한 형제들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 얼굴의 비밀 속으로 숨었다. 하지만 은총이 그들 마음 속의 욕망을 비우는 것에 비례하여 하느님의 성령이 들어와 하느님을 위해 만든 자리를 채우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다.
- 은둔하는 이 하느님의 형제들은 은둔하는 가운데 하느님과 너무도 가까워져 그분 말고는 어느 누구도 더는 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세속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 있다. 無로 줄어들었다. 마음속의 순수하고 완전한 겸손으로 그들은 하느님 속으로 녹아들었다. 맑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을 어린이로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하였다.
- 이런 수도원, 외딴 성가대, 독방, 은둔 생활, 고깔이 달린 수도복을 입은 가난한 수도사들, 무가 된 수도사들 등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고독에 대한 열망은 그 즉시 상처처럼 내 내면을 활짝 열어젖혔다.
- 영혼은 가치 있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운동선수와 비슷하다. 온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 수도원에서 40, 50년을 넘어 60년을 보내도 여전히 성마른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수사들이 있다. 왜 수도원 생활은 소속 구성원의 결점을 훨씬 심하게 보이게 하는 것일 까? 당신은 언제 같은 공동체의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흔들려 어려움을 겪었는가?
- 머튼은 행동하는 삶이나 행동, 목상이 결합도니 삶보다 오로지 목상에만 집중하는 삶을 선호했다.